

朝鮮 太祖・世宗年間 經筵에서의 讀書討論 考察

A Study on the Reading Discussion in the Gyeongyeon(經筵) between the Reign of Teajo(太祖)and Sejong(世宗) in Chosun Dynasty

金重權(Kim, Joong-Kwon)*

< 목 차 >

- | | |
|-------------|---------------|
| 1. 緒言 | 4. 經筵에서의 讀書討論 |
| 2. 經筵制度의 淵源 | 5. 結言 |
| 3. 初期의 經筵制度 | <參考文獻> |

< 초 록 >

經筵은 왕이 학문하는 장소이면서 문신들과 매일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고려시대부터 실시한 경연제도를 재정비하여 왕들의 경연의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왕에 따라 경연의 참여 및 독서토론 실시여부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조선 태조, 세종 연간의 경연에서의 독서토론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경연의 시원과 조선시대 초기의 경연제도 및 왕들의 독서토론 회수, 독서자료 등을 파악하여 그들의 독서행태를 밝혔다.¹⁾

요어: 경연, 독서토론, 태조, 정종, 태종, 세종

* 光州大學校 人文社會大 文獻情報學科 副教授(jkkim@hosim.kwangju.ac.kr)

접수일: 2004년 6월 1일 최초심사일: 2004년 6월 4일 심사완료일: 2004년 6월 18일

<ABSTRACT>

This is to study the reading discussion in the Gyeongyeon(經筵) between the Reign of Taejo(太祖) and Seajong(世宗) in Chosun Dynasty.

Major findings are as the follows:

The Gyeongyeon(經筵) was the agent of the king's reading discussion, to study the contents of Gyeongseo(經書) with civil minister

1. The Gyeongyeon(經筵) that was started in Goryeo Dynasty was developed in early Chosun Dynasty, but the king Taejo(太祖) and Jeongjong, Taejong(太宗) were not almost present at the reading discussion of the Gyeongyeon(經筵).

2. The king Seajong(世宗) have had several more of the reading discussion than pre-kings, and the number of times that he participated to the reading discussion was 1976.

3. The reading materials which they read at those day included the Daehagyeonyee(大學衍義), Saseo(四書), historical books etc... , but the Daehagyeonyee(大學衍義) was the most read of all Gyeongseo(經書) by them.

Keywords: Gyeongyeon, Reading Discussion, Taejo, Taejong, Seajong, Daehagyeonyee



1. 緒言

경연은 왕과 문신들이 모여 경서를 읽고 토론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 갔던 곳이다. 조선시대의 경연은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여 발전되었으며, 이곳에서 정치와 학문이 발전하는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왕이 되면 경연에서의 독서토론을 당연한 업무로 여기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방법을 배워야 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연관들이 선정한 책으로 그들과 일상적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는 형식을 취해야 했으며, 경연관은 매일 왕의 질문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다. 학문에 관심이 있는 왕은 경연에서의 독서토론이 진지하게 이루어지나 그렇지 않는 왕은 경연을 회피하고 경연청에 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연을 통하여 왕을 교육시키고 문신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여 올바른 정치로 인도하고 자신들이 지향하는 학문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연제도를 마련한 태조는 물론 그의 뒤를 이은 정종, 태종, 세종조에 이르기까지 경연에서의 독서토론을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동안 여러 학자들의 집현전 연구에 의하여 직, 간접적으로 경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더욱이 정두희는 “집현전 학사 연구”에서 경연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하여 왕조별 경연회수 및 분야별 토론까지 밝혀 집현전의 기능이나 당시 학사들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¹⁾ 이상옥은 “경연에 나타난 경학과 제왕”에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광범위하게 경연을 통한 제왕의 학문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²⁾ 그 밖에 강태훈은 “경연의 교육학적 접근”³⁾에서 제왕들의 교육목적,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 즉, 태조부터 세종까지의 왕들의 독서토론에 대한 시각에서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경연의 연원과 초기 왕들의 경연회수를 재조명하여 그들의 독서행태를 밝히

1) 정두희, 「집현전학사연구」, 『전북사학』 4집(전북대학교 사학회, 1980.2). p.130.

2) 李相玉, “經筵에 나타난 經學과 帝王”, 友石 文理大·法經大論文集 第4輯(友石大學校, 1970)

3) 姜泰訓, “經筵의 教育學的 接近”, 教育研究 第10, 11호(圓光大學校 教育問題研究所, 1992)

고, 또한 선정되어 읽은 자료들을 조사하여 집권기간에 어느 정도의 독서를 했는지 밝혀 독서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자하고자 한다.

2. 經筵制度的 淵源

경연이란 왕이 신하들과 경서를 읽고 토론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왕이 어릴 경우 왕을 교육시키는 자리이기도 했다. 경연을 맡은 관리를 경연관이라 하여 이들의 업무는 경서를 강독하고 논평하고 연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임용방식은 다른 관사의 관원으로 겸임하되 모두 문관 중에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영사 및 참찬관은 문관이 아니라도 겸임하도록 하였다(經國大典). 본 제도는 원래 중국의 황제가 신하들에게 경서를 강의하도록 하고 듣는 자리였다. 중국에서는 漢代에 宣帝가 여러 유신들을 불러 石渠閣에서 五經同異등의 강의를 듣는 것이 시초라고 한다.⁴⁾ 唐代에는 玄宗이 집현전의 시독학사 시강학사를 두어 경연을 열었으며⁵⁾, 宋代에는 철종이 경연에 나아가 강의를 들었고, 원대에는 泰定元年(1324)에 경연이 시작되었다.⁶⁾ 明代에는 英宗 天順年間(1457-1454)에 翰林院에 侍講學士, 侍讀學士 등을 두고 경연을 열었는데 2월과 8월 중순에 시작해서 4월과 10월 하순에 끝마치는 제도를 두었으며,⁷⁾ 清代에는 경연관이 仲春과 仲秋에는 사서오경을 진강하였는데 그들은 미리 진강할 과목의 제목을 올린 후 좋은 날을 정하여 文華殿에서 진강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경연제도를 만들어 황제들에게 유교이념을 고취시키고 유가들의 사상의 폭을 넓혀 갔으며, 백성들에게 교육의 근거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왕들에게 유가경전을 읽도록 하고 유교적인 사상을 왕에게 들려 줌으로서 자연히 유교사상이 왕 자신부터 고착되어 자신들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또

4) 漢書, 卷8 宣帝紀 甘露 3年條, 石渠閣, “詔諸儒, 講五經同異, 太子大傳, 蕭望之等, 平奏其議, 上親稱制臨決焉.”

5) 舊唐書, 卷43 志第23 職官2. p.1858.

6) 元史, 卷172. 列傳 第159. p.4015.

7) 明史, 卷173. 志第49. 職官2. p.1785-1788.

한 백성들에게는 교육의 근간으로 삼았던 것이다. 경연제도가 왕이 신하들의 유가 경전에 나타난 사상을 듣는 것이라면 그 역사는 삼국시대로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 “惠恭王 元年(765) 幸大學 命博士, 講尙書義와 同王 12年(776) 2月 幸國學, 聽講”이란 기록을 보면 이미 신라에서 서기 765년에 왕이 강의를 들었던 것으로 보면 경연의 시초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때는 해공왕이 8세에 등극하였으니 단순히 교육의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리라고 본다. 또한 경문왕 3년(?)에 친히 국학에 가서 강론을 들었으며,⁸⁾ 현강왕 5년(?)에도 국학에 가서 강론을 들었다.⁹⁾ 당시 왕들이 국학에 가는 때는 2월로 정해졌으며, 국학의 강론 교과목은 周易, 尙書, 毛詩, 禮記, 春秋左氏傳 등 5경이 주 과목이었고, 論語, 孝經, 曲禮, 文選 등이 많이 읽혀졌으니 왕들이 청강하며 읽었던 책도 5경 위주였다.

고려시대에는 유·불 양교를 숭상하면서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유교는 치국지교로 보고, 불교는 수신지교로 삼았다면 고려시대 왕들의 독서 역시 양교의 서적을 읽으며 정치생명을 이어 갔다고 볼 수 있다. 고려 초기에는 왕권이 안정되지 않아 왕들의 독서는 찾아 볼 수 없으나 광종 때에 이르러 개혁을 단행하면서 유가 경전을 평가해서 유교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인 과거제도(광종 9년; 958)를 시행하였다. 성종 11년(992)에는 국자감을 설치하였으며, 개경에 秘書省, 서경에 수서원이라는 도서관을 세웠으며, 문신월과하여 문신들에게 매달 시부를 지어 바치도록 하였다. 숙종 때(1095-1105)는 서적포를 두어 서적을 출판하여 독서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예종 때(1105-1122)는 淸讌閣과 보문각 등을 설립하여 문신들과 독서토론을 하였다. 인종 때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율학, 서학, 산학 등 6학을 제정비하였으며, 지방에는 향학이라는 지방교육기관을 세웠다. 또한 해동공자 崔沖은 九齋學堂이라는 사립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기도 하였다. 당시 인종(1122-1146) 때 사신으로 온 서긍은 고려견문기를 기록한 『高麗圖經』에 “고려왕궁에는 臨川閣이 있는데 장서가 수만권이요 老儒와 宿師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있으며, 개경의 거리마다 글 읽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 것은 당시의 독서열풍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8) 三國史記, 卷第11. 新羅本紀 第11. 景文王 3年, 春2月, “王幸國學, 令博士已下講論經義” p.6左.

9) 三國史記, 卷11. 新羅本紀 卷11. 憲康王 5年 春 2月. “幸國學, 命博士已下講論” p.11右.

우리나라에서 경연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시기는 인종 10년(1132) 4월의 기록이다. 고려사 세가 권16 인종 10년 4월 甲戌條에 “鄭沆·尹彥頤·鄭知常과 다시 ‘經筵’에 나아가 經書를 講議하게 하고, 아울러 花犀帶 1腰씩 하사하였다.”¹⁰⁾는 기록으로 보아 경연이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종 이전 예종(1105-1122)때부터 경연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인종이 부왕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예종은 즉위 초부터 경서 강독에 뜻을 두었으나 1116년(예종 11)에 청연각이 완공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서를 강론하기 시작하였으며,¹¹⁾ 인종은 14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를 계승하여 초기에는 경연을 실시하지 못하고 인종 5년에 麟麟閣에서 처음으로 金富佾과 『書經』의 <洪範篇>을 강독하였다. 그 후 鄭沆과 『書經』의 <說命篇> <周官篇>, 鄭知常과 『書經』의 <無逸篇>, 敦化堂에서 金富軾과 『書經』의 <無逸篇>, 윤언이(尹彥頤)와 『易經』의 <乾卦>, 鄭沆과 『禮記』의 <中庸篇>, 書籍所에서 鄭沆과 『忠義集』, 崇文殿에서 『周易』과 『尙書』, 壽樂堂에서 金富軾과 『周易』의 <乾卦>, 金富儀와 『禮記』의 <月令篇>, 鄭沆과 『詩經』의 <七月篇>, 윤언이(尹彥頤)와 『禮記』의 <月令篇>, 明仁殿에서 翰林學士 金富儀와 『書經』 <說命篇>, 天成殿에서 翰林學士 鄭沆과 『唐鑑』, 集賢殿(전 연영전)에서 金富軾과 『易經』의 <大畜>과 <復> 두 괘(卦)를 講讀 하였다. 예종은 경연장소를 주로 청연각에서만 실시한 반면에 인종은 기린각, 돈화당, 서적소, 수락당, 명인전, 천성전, 집현전 등 여러 장소로 이동하면서 강독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의종은 불경을 가까이 했지만 경서에도 관심을 가지고 가끔 경연에 나가 경서를 강독하기도 하였다.¹²⁾ 그 이후 경연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충렬왕(1274-1308) 때는 주로 불경 독서에 치우쳤다. 예종 때의 경연관들의 토론장소이자 도서관 역할을 한 보문각은 후에 태자의 서연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충목왕(1344)부터 경연의 명칭도 서연으로 변경하여 공민왕 중기까지 사용되다가 말기에 경연의 명칭으로 잠

10) 高麗史, 世家 卷16 “甲戌, 以鄭沆·尹彥頤·鄭知常, 再赴經筵, 講經, 並賜花犀帶一腰”

11) 金重權, 「高麗時代 睿宗의 讀書討論 考察」, 『書誌學研究』 第25輯(書誌學會, 2003. 6)

12) 高麗史, 卷18 世家 毅宗 16年(1162) 2月 “辛亥, 御經筵, 講論經義.”; 高麗史節要 卷11 毅宗 16年 2月. p.27.

시 변경되었지만¹³⁾ 다시 우왕 때부터 서연으로 바뀌어 강독하고, 공양왕 2년(1390) 1월부터 다시 경연으로 변경되었다.¹⁴⁾ 고려시대 경연에서 애독된 자료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이 주가 아니라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서경, 주역, 예기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貞觀政要』는 우왕 때부터 경연자료로 사용되었다. 우왕 3년(1377) 10월에 政堂文學 權仲和가 『貞觀政要』를 강독한 것이 시초이며,¹⁵⁾ 그 후 이 책은 공양왕 2년(1390) 윤(閏) 4월에 講讀官 成石瑒이 강독하기도 하였다.¹⁶⁾ 물론 四書を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우왕 1년(1375) 12월에 서연에서 대학을 읽었으며,¹⁷⁾ 동 9년(1383) 5월에는 성균관에서 사서를 가져와 논어를 몇 장 읽기도 하였다.¹⁸⁾ 이러한 四書가 조선시대에 와서 성리학의 발전으로 경연필수 과목으로 채택된 것이다.

3. 初期의 經筵制度

조선시대 경연제도는 독서토론을 통하여 왕의 인격수양과 백성을 위하는 자세를 배워 국가를 태평성대로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래서 왕들은 집권하면 여러 책 중에서 반드시 『大學衍義』 빠지지 않고 강독하여 수신제

13) 高麗史, 卷43. 世家 恭愍王 20年(1371) 11月 “丙寅, 司憲府上疏, 請開經筵, 繕兵訓卒, 省赦.”

14) 高麗史, 卷45 世家 恭讓王 2年(1390) 1月 “丙子, 始開經筵, 以沈德符及我太祖, 領經筵事, 鄭夢周·鄭道傳, 知經筵事, 金士衡·朴宜中, 同知經筵事, 李行·成石瑒·閔開·李士涓, 參贊官, 尹紹宗·李詹, 講讀官, 禹洪得·韓尙敬·申元弼, 檢討官, 分四番進講.”; 高麗史節要 卷34 恭讓王 2年 春正月. p.45.

15) 高麗史, 卷133. 列傳 46. 辛禡 3年(1377) 10月 庚申條.

16) 高麗史, 卷45. 世家 恭讓王 2年(1390) 閏 4月 己丑, “六十奴及火者卜尼, 如京師. 王, 御經筵, 講讀官成石瑒, 進講貞觀政要曰, 太宗, 好聽直言, 然臣下畏威, 下能盡言, 太宗, 深知之, 必和顏而納之曰, 群臣, 盍爲我言之, 蓋古之聖君, 以天下之聰明, 薊薊爲己聰明, 故必採之言, 願上廣咨博訪, 裁度而用之, 僞朝辛禡, 狂暴拒諫, 多行不道, 時, 臣爲獻納, 與諫議權近, 極諫, 禡醉甚, 欲射臣等, 是其所以速亡也.”

17) 高麗史, 卷133. 列傳 46. 辛禡 1年. p.4左.

18) 高麗史, 卷135. 列傳 48. 辛禡 9年. p.21.

가(修身齊家)·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효과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태조는 건국 후 문무백관의 관제를 정비하면서 고려시대부터 실시해온 경연제도를 부활하여 경서를 읽고 토론할 경연관을 두었다. 당시 경연관의 수는 영사(領事) 1명(侍中 이상), 지사(知事) 2명(정2품), 동지사(同知事) 2명(종2품), 참찬관(參贊官) 5명(정3품), 강독관(講讀官) 4명(종3품), 검토관(檢討官) 2명(정4품), 부검토관(副檢討官; 정5품), 서리(書吏; 7품) 등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는 조선시대 처음으로 태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태조 역시 고려의 경연제도를 계속해서 시행한 것뿐이다. 태조 자신도 고려시대 무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양왕 2년(1390) 1월에 沈德符와 영경연사가 되어 당시 知經筵事인 鄭夢周와 鄭道傳,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인 金士衡과 朴宜中, 참찬관(參贊官)인 李行·성석용(成石瑢)·민개(閔開)·이사위(李士涇), 강독관인 尹紹宗·이침(李詹), 검토관인 禹洪得·한상경(韓尙敬)·신원필(申元弼) 등과 참여한 바 있다.¹⁹⁾ 그 관계로 태조 자신으로서는 경연이 생소한 것은 아니었다. 고려 공민왕 때는 영경연사 2명, 지경연사 2명, 동지경연사 2명, 참찬관 4명, 강독관 2명, 검토관 3명 등이었던 것을 태조가 건국 후에 2명이었던 영경연사를 1명으로 줄이고 참찬관을 1명, 강독관 2명을 증가시켰으며, 검토관 3명이었던 것을 2명으로 하고 부검토관 1명과 서리를 더 두었다. 그러나 시대가 가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세종이 즉위하면서 경연제도를 재정비하고 8월 11일에 경연관들을 배정하였는데, 박은을 左議政 領經筵事로, 李原을 右議政 領經筵事로, 劉敞을 玉川府院君으로, 변계량을 禮曹判書 知經筵事로, 柳觀을 藝文館大提學 知經筵事로, 卓愼을 禮曹參判 同知經筵事로, 李之剛을 戶曹參判 同知經筵事로, 李明德을 吏曹參判으로, 河演을 知申事로, 元肅을 左代言으로, 成揜을 左副代言으로, 司宰監正 李隨를 同副代言으로, 尹淮를 判承文院事 經筵侍講官으로, 鄭招를 判軍資監事 經筵侍講官으로 삼았다.²⁰⁾ 태조 때 영경연사 1명이었던 것을 2명으로 하고 지경연사, 동지경연

19) 高麗史, 卷45. 世家 恭讓王 2年(1390) 1月 “丙子, 始開經筵, 以沈德符及我太祖, 領經筵事, 鄭夢周·鄭道傳, 知經筵事, 金士衡·朴宜中, 同知經筵事, 李行·成石瑢·閔開·李士涇, 參贊官, 尹紹宗·李詹, 講讀官, 禹洪得·韓尙敬·申元弼, 檢討官, 分四番進講.”

사, 시강관 등을 1명씩 증가시켰다.²¹⁾ 이 숫자는 경국대전 집필 당시 더 증가시켜 영사 3명(정일품), 지사 3명(정2품), 동지사 3명(중2품), 참찬관 7명(정3품; 승지와 부제학이 겸임한다), 시강관(정4품), 시독관(정5품), 검토관(정6품), 司經(정7품), 說經(정8품), 典經(정9품) 등으로 하였다. 경연 시 이들의 좌석배치는 頌經筵은 동쪽 벽에, 知經筵과 同知經筵은 서쪽 벽에 앉게 하고, 參贊官 이하는 남쪽 줄에 있도록 하였으며,²²⁾ 강독 방법은 영경연 외에 동지경연 이상은 하루에 한 사람씩 進講하고, 시독관 이하는 세 번으로 나누어 진강하며, 참찬관 김익정·이수·윤희도 역시 하루에 한 사람씩 진강하도록 하였다.²³⁾ 이와 같이 번갈아 가면서 당번을 정하여 경연에 참여하였는데 세종 즉위년(1418) 12월 17일에는 同知經筵官 卓愼의 건의로 강독방법을 변경한 일이 있다. 경연관들이 타 업무를 담당한 관계로 강론할 여가가 없고, 강론한다 해도 상세치 못하다는 이유로 경연관을 모두 합하여 한 번으로 하여 경연청에서 점심까지 제공하면서 토론한 일도 있었다.²⁴⁾ 이는 집현전이 정비되기 전이기 때문에 경연제도도 안정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동 11월 7일부터는 사간원의 간관도 교대로 경연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사관도 필히 참석하여 경연내용을 모두 기록하도록 하였다. 경연에서의 사관의 입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서토론의 내용이 모두 작성될 뿐만 아니라 경연에서 정사에 관한 내용도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기록으로 남기면 국가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곧 이들의 기록이 왜곡되지 않는 이상 정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사관이 매일 경연에 참석하여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여 세상에 알려진다는 것도 임금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는 일일지 모른다. 결국 세종도 사관을 경연에 참석을 금한 때도 있었다. 세종 19년(1437) 9월 7일에는 세종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사관의 참석을 못하도록 하자 그 다음 날인 8일에 사관 金季友가 “옛부터 사관은 반드시 경연에

20) 世宗實錄, 卷1. 책2. p.261. 卽位年 8月 戊子.

21) 世宗實錄, 卷1. 책2. p.261. 卽位年 8月 己丑.

22) 世宗實錄, 卷1. 책2. p.263. 卽位年 8月 戊戌.

23) 世宗實錄, 卷1. 책2. p.273. 卽位年 10月 癸未.

24) 世宗實錄, 卷2. 책2. p.291. 卽位年 12月 壬辰.

入侍하고 또 이미 법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제 다시 경연에 나아가신 지 수일이 되었지만 사관이 아직도 입시하지를 못하므로, 특히 사관을 설치한 뜻이 없으니 경연에 입시하기를 청합니다.”²⁵⁾라는 건의로 경연의 입시를 허락 받은 일이 있다. 따라서 당시 경연에 참석한 자는 경연관외에도 사간원의 간관, 사관 등이 참석하였던 것이다.

경연에서 읽어야 할 책의 종류는 儒家經典, 史書 등으로 하였으며, 老子, 莊子의 관련서적이거나 불서, 의서, 무경 등의 책은 제외되었다. 책의 선정에 있어서는 왕과 경연관들이 토의해서 정해진 것이 일반적이나 거의 경연관들에 의해 자료가 결정된다. 가장 먼저 왕은 선왕 때부터 관례적으로 읽어 왔던 책을 읽어야 했으며, 왕이 읽고 싶은 책이 있어도 경연관들의 반대에 읽기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經筵에서 부족한 책은 집현전에서 대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세종 25년(1433)부터는 經筵에서 대출할 경우 대출증표인 烏梅符를, 書筵에서는 黃楊木을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면²⁶⁾왕의 독서자료로 선정된 자료라 해서 자유롭게 책을 대출할 수 없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4. 經筵에서의 讀書討論

4.1 太祖의 讀書討論

태조는 무관출신이어서 아니면 나이가 들어 책에 관심이 없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경연제도를 재정비하고 경연관들을 임명하고서도 경연에 나가는 날이 거의 없었다. 기록상으로 보면 그 주된 원인이 자신은 늙었다는 이유에서다. 몇 달이 흘러도 태조가 경연에 발걸음을 하지 않자 동 11월에 사간원에서 경연을 열도록 건의를 했지만 자신은 늙었다는 구실로 회피하곤 하였다. 보다 못한 안경공이 “간관의 뜻

25) 世宗實錄, 卷78. 책4. p.104. 19年 9月 乙未.

26) 世宗實錄, 卷101. 책4. p.494. 25年 7月 庚午.

은 다만 전하에게 글을 읽게 하려고 함이 아니옵고, 대개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여 바른말을 듣게 하려고 함입니다.”라고 건의하자 태조는 편전에서 劉敬과 함께 『大學衍義』를 강론하고 있다하여 회피하였다.²⁷⁾ 그 후에도 계속해서 경연을 등한시 하자 사간원에서 다시 경연의 실시를 건의한 바 있다. 건의 내용을 보면,

“(전략)先儒 眞德秀가 『大學衍義』를 지어 經筵에 올렸는데, 그 글이 맨 처음에 제왕의 정치하는 차례로 시작하고, 다음에 제왕의 학문하는 근본으로 편차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綱이요, 맨 처음에 道術을 밝히고 人材를 辨別하며, 정치하는 大體를 詳審하고 民情을 살피는 일로써 시작한 것은 格物致知의 要領이요, 다음에 敬畏를 숭상하고 逸欲을 경계하는 일로써 편차한 것은 誠意正心の 요령이요, 그 다음에 言行을 삼가하고 威儀를 바르게 하는 일로써 편차한 것은 修身의 요령이요, 그 다음에 配匹을 소중히 여기고, 內治를 엄격히 하고, 國本을 정하고, 戚屬을 가르치는 일로써 편차한 것은 齊家の 요령이니, 이것이 이른바 目입니다. 맨 처음에 聖賢의 訓典으로써 시작하고, 다음에 古今의 事實으로써 편차하여 군주의 마땅히 알아야만 될 이치와 마땅히 해야만 될 일이 상세히 이에 나타나 있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潛邸에 계실 때부터 書冊 보기를 좋아하였으며, 왕위에 오르신 후에도 매일 講論에 열중하셨으니, 그 窮理正心の 학문과 修己治人의 방법에 있어서 진실로 이미 밝게 아시고, 자세히 강론하셨을 것입니다. 신 등은 건문이 적고 우매하니 어찌 감히 헤아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經筵을 설치하고서도 한갓 그 명칭만 있을 뿐이지 나아가 강론하는 때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하의 생각에는 반드시 넓은 집과 큰 뜰 안의 어느 곳이든지 학문이 아닌 곳이 없는데, 어찌 반드시 일정한 법도에 구속되어 날마다 經筵에 나간 후에야 학문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실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군주의 학문은 한갓 외우고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날마다 경연에 나가서 선비를 맞이하여 강론을 듣는 것은, 첫째는, 어진 사대부를 접견할 때가 많음으로써 그 德性을 薰陶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宦官과 宮妾을 가까이 할 때가 적음으로써, 그 나태함을 振作시

27) 太祖實錄, 卷2, 책1, p.35. 1年 11月 己丑.

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창업한 군주는 자손들의 모범이 되니, 전하께서 만약 經筵을 急務로 여기지 않으신다면 뒷세상에서 이를 구실로 삼아, 그 流弊는 반드시 학문을 하지 않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니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經筵에 나가셔서 『大學』을 가져와 강론하게 하여, 格物致知·誠意正心の 학문을 연구하여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효과를 이루게 하소서.”²⁸⁾

라는 글을 올려 『大學』으로 경연을 열도록 하여 응답을 받아냈으나 기록상으로 태조는 경연의 회수가 거의 없다. 태조 7년(1398) 10월 5일에 侍講官 裴仲倫과 『貞觀政要』를 講論하였으며, 동년 11월 11일 知經筵事 趙璞과 『大學』을 강론하고, 동 12월 9일 경연에서 『論語』를 읽었다. 당시 史官이 經筵에 入侍하기를 청하였으나, 유히하지 아니하였다. 동 12월 14일 侍講官 全伯英과 『論語』의 ‘北辰居其所衆星拱之’ 章을 講論하면서 日食에 대해서 토론하였으며,²⁹⁾ 동 12월 16일에 『論語』를 강론하면서 산천체에 대해서 토론한 것 등이 전부이다. 그러나 <표 1>을 통하여 보면 태조는 집권 시에 실질적으로 경연을 한번도 경연을 개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1> 太祖의 讀書討論 日程 및 資料

時期	資料	內容	講讀官
太祖 1年 11月	大學衍義		劉敬
7年 10月 5日	貞觀政要		裴仲倫
11月 11日	大學		趙璞
12月 9日	論語		
12月 14日	論語	北辰居其所衆星拱之	全伯英
12月 16日	論語	季氏旅於泰山	李舒, 柳觀

태조 1년(1392) 11월에 유경과 『大學衍義』를 읽었지만 공식적인 경연이 아니었으며, 태조 7년(1398) 10월부터 경연에서 읽었던 자료들은 재위시가 아니라 둘째 아

28) 太祖實錄, 卷2. 책1. p.35. 1年 11月 辛卯.

29) 太祖實錄, 卷15. 책1. p.141. 7年 12月 丙辰.

들인 방과에게 동년 9월에 왕위를 물려준 후 상왕으로 있으면서 10월부터 5번의 경연을 연 것이 그의 독서토론 기록이다. 물론 사관이 경연에 입시하지 않아서 사실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아 실록에 없는지는 알 수 없다. 그가 상왕으로 있으면서 5회의 경연에서 읽었던 책은 『貞觀政要』 『大學』 『論語』 3종이나 이 것도 정종이 즉위한 후이기 때문에 정종이 읽었던 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태조는 창업주로서 조선시대에 왕의 교육제도이자 문신들과의 독서토론 격인 경연제도의 기반을 세우면서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가 상왕으로 재직할 때는 좌정승 조준·大司憲 趙璞·政堂文學 하륜·中樞院學士 李詹·左諫議大夫 趙庸·奉常少卿 鄭以吾 등이 『四書切要』를 撰述하여 바침으로서³⁰⁾ 사서강독에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4.2 定宗의 讀書討論

태조를 계승한 정종(1357-1419, 재위기간 1398년 9월-1400 11월)도 경연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독서하려고 노력했지만 집권기간(2년 2개월)이 짧아 그 뜻을 펴지 못하였다. 정종이 처음으로 경연을 연 것은 태조 7년 즉, 정종 즉위년 10월 5일 이후부터 볼 수 있지만 독자적으로 경연청에 참여한 것은 정종 1년(1399) 1월 3일이다. 지경연사 이서 등과 경연청의 벽에 의기도를 걸면서 시작되었다.³¹⁾ 동 1월 7일에는 경연에 사관을 문하부의 건의로 입시하게 하여 知經筵事 趙璞 등과 논어를 진강하게 하고 토론을 실시하였다. 경연이 끝나면 손과 발이 저리고 아프다는 이유로 운동 삼아 격구를 즐기곤 하였다. 정종 1년(1399) 3월에 집현전을 설치하여 장서를 관리하고 경적을 강론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문신들에게는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었지만 정종 자신은 격구를 좋아하여 책을 가까이 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문하부에서 정종 1년(1399)년 5월 1일에 시무 10조를 올렸는데 그 중의 경연조에, “경연의 제도는 道學을 講明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대 흥망의 자취도 강구하

30) 太祖實錄, 卷15. 책1. p.141. 7年 12月 己未.

31) 定宗實錄, 卷1. 책1. p.143. 1年 1月 甲戌.

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은 법이 될 수 있고, 악한 것은 경계가 될 수 있으므로 죽히 그 선한 마음을 용동(聳動)시키고 방종한 뜻을 징계할 수 있다 하옵니다. 지금 경연관은 다만 句讀만 알아 道學의 宗旨도 講明하지 않고, 역대의 자취도 진달하지 못합니다. 그럼으로 비록 전하께서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시나 聖學에 도움이 없으니, 경연관의 직분을 대단히 잃은 것입니다. 원하건대, 이제부터 매일 경연에 나아가시면 臺諫 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대하여 입시하게 하고, 또 경연관으로 하여금 治道를 강론하게 하여, 날이 기운 뒤에 破하소서³²⁾라는 건의와 擊毬의 놀이는 망한 元나라 때에 임금과 신하가 도리를 잃고 행하던 것이니 금하라는 이 부분에서 노여워하여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적도 있다. 그 후에도 경연을 자주 실시하지는 못했지만 그 중요성은 정종자신이 알고 있는 것 같다. 그 사실은 다음의 하륜과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하륜: 고려 辛氏가 처음 즉위하여서는 총명이 남보다 뛰어나고, 또 書筵을 설치하여 儒士를 뽑아 두고 날마다 배움에 나가니, 당시의 卿相 등이 모두 말하기를, ‘明君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간사한 소인의 무리가 꼬이기를, ‘말을 달리고 칼을 쓰는 일은 젊었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제일입니다.’고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학문을 폐하고 사냥하기를 좋아하며 聲色에 빠져 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종: 그렇다. 내가 그때에 書筵 侍讀官이 되었는데, 왕이 싫어하여 나에게 將軍의 職任을 주고, 날마다 侍中 林堅味의 아들 林緄 등 두세 사람과 더불어 사냥하는 것을 익혔었다. 나는 늙었으니 배울 수 없지마는, 人主는 나이 젊었을 때를 당하여 날마다 儒臣과 더불어 治道를 강론하면 어찌 도움이 없겠는가?³³⁾

이 대화 내용에서 고려 우왕때 서연을 열어 처음에는 우왕 자신이 명군의 평가를 받았지만 사냥을 좋아하고 성색에 빠져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륜이 들려준 이 유는 당시 정종이 격구 등을 좋아하여 경연을 등한시 한 까닭에 자극을 주고자 함

32) 定宗實錄, 卷1. 책1. p.147. 1年 5月 庚午.

33) 定宗實錄, 卷4. 책1. p.173. 2年 5月 壬申.

으로 보인다. 정종이 자신도 우왕 때 서연 시독관이 되었는데 왕이 싫어하여 장군으로 임명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경연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늙었다는 이유로 경연을 회피하려고 한 내용이다. 그러나 전혀 경연을 멀리한 것은 아니다. 시간 날 때마다 경연청으로 가서 경연관들과 토론하기도 했다. 정종 2년(1400) 8월 4일에는 경연에서 古詩를 읽고 싶다하여 동지경연사 李詹이 杜詩 3백수를 올려 경연에서 보도록 하였으며,³⁴⁾ 그밖에 유교와 불교, 노자, 神仙의 道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다.³⁵⁾ 동년 11월 13일에는 권근에게 『大學衍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잘했다하여 음식을 하사하여 독려해 주기도 했다.³⁶⁾ 그의 경연일정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定宗의 讀書討論 日程 및 資料

時 期	資 料	內 容	經筵官(職責)
定宗 1年 1月 3日			李舒(知經筵事)
1月 7日	論語		趙璞(知經筵事)
1月 9日	論語	克己復禮	李詹(中樞院學士), 李舒
1月 19日			
2年 1月 1日	通鑑撮要		權近(知經筵事)
1月 10日	通鑑撮要		裴仲倫(侍讀官), 河崙(知經筵事)
1月 24日	通鑑撮要		全伯英(同知經筵事)
2月 22日	通鑑撮要		全伯英(同知經筵事)
3月 8日			河崙(知經筵事)
3月 18日			權近(同知經筵事), 全伯英
3月 19日			權近
4月 6日			全伯英(中樞院使)
5月 7日			
5月 8日			河崙(知經筵事)
5月 17日	通鑑撮要		權近, 全伯英(同知經筵事)
6月 2日	通鑑綱目	魏紀	河崙(知經筵事)·李詹
8月 4日	通鑑綱目		李詹(同知經筵事)
10月 3日		儒, 佛, 老子	李詹
11月 13日	大學衍義		權近
12月 18日	大學衍義		成石璘(知經筵事)

34) 定宗實錄, 卷5. 책1. p.182. 2年 8月 丙申.

35) 定宗實錄, 卷6. 책1. p.184. 2年 10月 甲午.

36) 定宗實錄, 卷6. 책1. p.187. 2年 11月 癸酉.

정종은 집권기간에 총 36회 정도의 경연을 실시하여 『貞觀政要』, 『論語』, 『通鑑』, 『大學衍義』를 읽고 토론한 것이 전부이다. 독서토론을 위한 경연관은 조박, 이첨, 이서, 裴仲倫, 권근, 전백영, 하륜, 성석린 등이 담당하였으며, 이들은 경연에서 토론하면서 불교를 배척하는 발언과³⁷⁾ 국내의 정세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곤 하였다. 경연에서의 독서토론자료는 왕과 경연관들이 상의하여 보편적으로 선정되지만, 거의 경연관들의 의도대로 선정된다. 정종 2년(1400) 4월 6일에는 전백영이 『尙書』보다는 『大學』이 경연자료로서 합당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尙書』는 왕의 학문에는 좋은 자료이나 五誥와 盤庚·禹貢 등의 글이 難澁하여 읽기 어려운 곳이 있으므로 반드시 進講할 것이 없고, 『大學』一部の 格致·誠正·혈구의 도 같은 것은 실로 제왕의 다스림을 영위하는 법이라는 말로 『大學』이라는 책에 중점을 더 두고 있다.³⁸⁾ 결국 정종은 집권시에는 『大學衍義』를 읽지 못하고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상왕으로 있으면서 정종 2년(1400) 11월 13일 맹사성 등이 매일 경연을 열고 인재를 공평히 등용할 것 등 5개 조목의 건의로 세자 때 書筵에서 읽었던 『大學衍義』를 다시 경연에서 읽었는데 이 책이 마지막 경연자료였다.

4.3 太宗의 讀書討論

태종(1367-1422, 재위기간 1400년 11월-1418년 8월)은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한 뒤 세제로 책봉된 뒤 그해 11월에 정종에게 왕위를 계승받고 거의 경연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확실한 그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정종이 격구를 좋아하듯이 태종도 격구 및 사냥 등을 좋아하여 자꾸 밖으로만 나갔기 때문에 책을 가까이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태종이 경연을 멀리하자 태종 1년(1401) 1월 14일 參贊門下府事 權近이 임금의 시행해야 할 일 6조목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 내용 중 네 번째 경연조에서,

37) 定宗實錄, 卷3. 책1. p.161. 2年 1月 乙亥; p.167. 2年 2月 庚申.

38) 定宗實錄, 卷4. 책1. p.169. 2年 4月 辛丑.

“경연에 부지런할 것입니다. 帝王의 道는 學問으로 밝아지고 제왕의 정치는 학문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왕이 반드시 경연을 베풀어서 聖學을 강구하는 것이 진실로 이 까닭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비록 경연을 베풀었으나, 경연을 정지하는 날이 대개 많았습니다. 전하께서 天性이 英明하고 학문이 精博하시니, 儒臣이 進講함이 어찌 능히 발휘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전하께서 경연에 납시어 정신을 專一하게 하여 講究하시면, 마음 가운데에 의리가 밝게 나타나서, 편안히 있어 행함이 없는 때와 정사를 들어 일이 많은 때보다는 반드시 다름이 있을 것입니다. 聖學이 어찌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진보하지 않겠습니까. 또 진강하는 신하들이 비록 모두 용렬한 선비이오나, 전하께서 배웠다고 일컫는 자들입니다. 날을 輪番으로 교대하여 나와서 進退를 기다리다가, 분부가 없으시어 물려간 것이 여러 번이오니, 선비를 높이고 학문을 향하는 뜻이 너무나 가볍지 않습니까? 옛적에 부열(傅說)이 殷 高宗에게 말하기를, ‘학문은 뜻을 공손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엇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天資의 高明함을 믿지 마시고, 儒臣들의 고루함을 말하지 마시고,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서 마음을 비우시고 뜻을 공손히 하여 부지런히 講明하시어, 감히 하루라도 정지하지 마소서. 다른 연고가 있으시어 경연을 정지하는 날에도 또한 마땅히 講官을 만난 다음 罷하소서.”³⁹⁾

이 내용을 보면 경연청에서 경연관들이 독서토론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다 소식이 없어 돌아가곤 하는 날이 여러 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 3월 11일에도 문하부에서 경연에 나갈 것을 건의하였지만 경연청이 수리중이고 안질이 있어 나가지 못한다는 구실로 경연을 정지하였다.⁴⁰⁾ 그 이후에도 사냥을 즐기고 잔치를 베푸는 등 독서에 전념하지 않자 동 3월 23일에 문하부에서 재차 건의를 하자 시독관 金科에게 경연에 나가지는 않지만 金科와 글을 읽으니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경연을 꺼려하였다.⁴¹⁾ 태종 1년(1401) 윤 3월 23일 처음으로 金科와 『大學衍義』를 강독하기 시작하여 5월 6일, 5월 8일 계속해서 경연 후에 주연을 베풀

39) 太宗實錄, 卷1. 책1, p.191. 1年 1月 甲戌.

40) 太宗實錄, 卷1. 책1. p.198. 1年 3月 庚午.

41) 太宗實錄, 卷1. 책1. p.199. 1年 3月 壬午.

풀었다. 5월 8일에는 同知事 李詹이 『大學衍義』의 湯之盤銘章을 進講하고, 參贊官 承旨 朴信·侍講官 趙庸·侍讀官 諫議 金謙·司農卿 金科 등이 참여하여 서로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임금의 강론이 매우 정밀하였다고 한다. 당시 사관 閔麟生이 자리를 같이하였는데 경연뿐만 아니라 편전에도 사관이 참여문제도 논의되었다.⁴²⁾ 동 11월 20일에도 知經筵事 權近·侍讀官 金瞻 등과 『大學衍義』를 進講하고 토론이 끝난 후 술과 과일을 경연관들에게 하사하였다.⁴³⁾ 3월부터 시작한 『大學衍義』를 동 12월 22일에 완독하였는데, 경연관 李詹등이 축하하려고 하자 태종은金科에게 “『大學衍義』를 다 읽으니 이제야 학문의 공을 알겠다. 내가 익히 읽어서 실천하기를 기다린 후에 축하를 해달라고 하였다.⁴⁴⁾ 그러나 그 이후부터 또 다시 경연을 멀리하므로 태종 2년 6월 18일에 사간원에서 『大學衍義』를 마쳤으니 경연에 나아가 『尙書』를 읽을 것을 독려하였지만⁴⁵⁾ 경연을 열지 않고 정지한 날이 많았다. 그 이듬해인 태종 3년 1월 7일에金科와 『尙書』를 읽고 토론하였으나 끝까지 필독하지 못하고 동 2월 23일부터는 황제가 내려주었다 하여 『十八史略』으로 바꾸어 동 11월 6일까지 강론하였다.⁴⁶⁾ 강론하는 자리에는 항상 侍讀官인金科가 있었다. 경연을 열지 않더라도 수시로金科를 불러 강론하였으며,金科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권근에게 질문하여 왕에게 답변하곤 하였다.⁴⁷⁾ 태종 6년 5월 2일에는 경연에 나아가金科·孟思誠·李垠 등을 불러 『論語』와 『孟子』는 읽었으나 『中庸』은 읽지 않았다 하여 끝까지 읽고 토론을 마친 뒤 이들에게 친히 시험을 치르고자 하니 열심히 읽고 명을 기다리라고까지 하였다.⁴⁸⁾ 그 이후부터는 경연을 정지하여 토론한 적이 없으며 경연정에 나가서도 술자리만 베풀었지 책을 읽지 않았다. 사간원에서 경연을 열도록 상소를 올리곤 했지만 자신은 늙어서 경연 같은 것은 할 수 없으므로 세자에게 학문을 권하라는 말만 하였다.⁴⁹⁾ 계속해서 경연을 멀리하자 태종 14년 8월 17

42) 太宗實錄, 卷1. 책1. p.204. 1年 5月 丙申.

43) 太宗實錄, 卷2. 책1. p.217. 1年 11月 甲辰.

44) 太宗實錄, 卷2. 책1. p.221. 1年 12月 丙子.

45) 太宗實錄, 卷3. 책1. p.238. 2年 6月 庚午.

46) 太宗實錄, 卷6. 책1. p.282. 3年 11月 庚辰.

47) 太宗實錄, 卷5. 책1. p.259. 3年 3月 丁亥.

48) 太宗實錄, 卷11. 책1. p.356. 6年 5月 辛卯.

일 시간원에서 다시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다.

“옛부터 帝王은 반드시 經筵을 설치하여서 聖學을 講하는 것은 진실로 道가 學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고 治가 學으로 말미암아 넓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하가 즉위하던 처음에 날마다 經筵에 나아가서 經籍을 강론하여 부지런히 힘쓰고 倦怠로움을 잊으시니, 治道가 나오는 根源이 맑았습니다. 이제 백성과 물건이 富盛하고 많아져서 中外가 평안하게 다스려지는 것은 실로 여기에 기초를 둔 것입니다. 근년 이래로 비록 經筵官을 설치하였으나 강론을 거두신 지가 오래됩니다. 신 등은 그웁이 생각컨대, 전하가 天性이 英明하고 학문이 精하고 넓으며, 비록 燕閒에居하더라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篤實하게 학문을 좋아함이 이에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연에 나아가서 정신을 집중하여 講究하면 方寸의 天心에 義理가 밝게 나타나 聖學이 더욱 진전하고 정치의 효과가 더욱 빛날 것입니다. 옳되 바라컨대, 전하는 조정의 신하 가운데 學行이 있는 자를 신중히 가려서 모두 經筵을 兼하게 하소서. 또 領經筵 이하의 經筵官으로 하여금 날마다 돌려 가면서 바꾸어 進講하게 하고, 經史를 토론하고, 前古의 得失과 興亡이나 今世의 舉措와 施策을 논란하지 않음이 없으면 聖學이 넓어지고 治道에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⁵⁰⁾

그러나 태종 7년부터 집권 말기까지 태종은 경연에서 한번도 독서토론을 하지 않고 1418년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태종의 경연회수는 집권 17년 10개월 정도 되지만 기록상으로 보면 15회정도에 불과하다. 그가 경연에서 가장 친근했던 사람은 金科였으며, 金科와 읽었던 책도 『大學衍義』, 『尙書』, 『十八史略』, 『中庸』 등 4종뿐이다.

4.4 世宗의 讀書討論

세종은 제왕 중에 가장 독서를 좋아한 왕으로 전해져 왔다. 경연에서뿐만 아니라

49) 太宗實錄, 卷18. 책1. p.501. 9年 8月 戊申.

50) 太宗實錄, 卷28. 책2. p.31. 14年 8月 丁巳.

평소에 혼자 있을 때는 손에서 책을 떼지 않았으며, 경서를 읽을 때는 백번을 넘게 읽고, 子史는 30번을 넘게 읽었다고 하였다.⁵¹⁾ 세자시절에도 책읽기를 좋아하여 『左傳』과 『楚辭』를 백번씩 읽었으며, 몸이 좋지 않거나 병이 들어도 책을 놓지 않자 부왕인 태종이 책을 가져갔는데 병풍사이에 둔 區陽修와 蘇東坡의 手簡本을 백번씩 읽었다고 한다.⁵²⁾ 즉위 후 집현전을 정비하여 학사들에게 경연과 서연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책을 보존하여 독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왕은 경연에서, 세자는 서연에서 규칙적인 독서를 하고, 학사들에게는 일정 기간동안 휴가를 주어 독서를 권장하였다. 이는 세종이 문치주의를 지향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세종은 평생 동안 독서를 얼마나 했으며, 그의 독서행위는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 의문점이다. 개인적인 독서행위는 알 수 없지만 공식적인 경연에서의 독서행태는 기록을 통해 살펴볼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세종의 경연자료 및 경연참석빈도 등을 조사하여 그의 독서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종(1397-1450, 재위기간 1418년 8월-1450년 2월; 54세)은 부왕의 형식적인 경연제도를 재정비하고 매일 경연에서 독서토론을 실시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가 집권 후 처음으로 경연에 참석한 때는 즉위년(1418) 10월 7일이며, 당시 경연에 참석한 경연관은 領經筵事 박은·이원, 지경연사 柳觀·변계량, 동지경연사 李之剛, 參贊官 하연·김익정·이수·尹淮, 侍講官 정초·柳穎, 侍讀官 성개, 檢討官 김자, 부검토포관 權蹈 등으로 강독자료는 『大學衍義』였다. 세종은 『大學衍義』를 읽고 토론하면서 『資治通鑑』⁵³⁾을 읽고 싶어 했다. 그러나 柳觀이 자치통감은 책의 수효가 많

51) 世宗實錄, 卷127. 책5. p.173. 32年 2月 丁酉.

議政府選行狀, “臨經筵, 潛心聖學, 講論古今, 然後入內燕坐讀書, 手不釋卷, 夜分乃寢, 於書無所不讀, 凡一經耳目, 終身不忘, 而其讀經書則, 必過百遍, 國史則, 必過三十遍, 精研性理, 博通古今.”

52) 筆苑雜記

53) 宋의 司馬光(1019~1086)이 편찬한 역사서. 총294권으로 『通鑑』이라고도 한다. 周나라 威烈王이 晉나라 3경(卿·韓·魏·趙氏)을 제후로 인정한 BC 403년부터 五代 後周의 世宗 때인 960년에 이르기까지 1362년간의 역사를 1년씩 묶어서 편찬한 것이다. 周紀 5권, 秦紀 3권, 漢紀 60권, 魏紀 10권, 晉紀 40권, 宋紀 16권, 齊紀 10권, 梁紀 22권, 陳紀 10권, 隋紀 8권, 唐紀 81권, 後梁紀 6권, 後唐紀 8권, 後晉紀 6권, 後漢紀 4권, 後周紀 5권 등 모두 16紀 24권으로 구성되었다. 사마광이 『通志』 8권을 撰進하자 英宗이 編纂局을 개설하고 사마광의 주재하에 劉狀이 前後漢을, 劉恕가 三國에서 南北朝까지, 范祖禹가 唐나라 및 5대를 각각 분담하여 기술하였다. 正史는 물론 實錄·

아 완독하기 어렵다고 하자 金益精이 『近思錄』을 추천하였다. 세종도 『近思錄』으로 결정을 하였지만⁵⁴⁾ 『近思錄』은 경연에서 다루지 않고 계속해서 『大學衍義』를 읽어 이듬해인 세종 1년(1419) 3월 27일 중강하였다. 『大學衍義』를 마쳤으니 새로운 자료로 시작해야 하나 세종은 동 3월 30일 다시 『大學衍義』를 읽기로 하여 7월 9일에 필독하였다. 즉, 집권 후 1년 만에 경연에서 『大學衍義』를 두 번이나 완독한 것이다. 동 7월 13일부터 『春秋』를 읽고 토론하였으며, 세종 2년(1420) 윤1월 1일에는 朱子の 『通鑑綱目』을 경연자료로 삼았다. 4년(1422) 1월 23일에는 『中庸』을 읽기 시작하였으며, 동 12월 25일에는 『尙書』를, 5년 9월 7일에는 다시 『通鑑綱目』을 시작하고, 6년(1424) 3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大學』을 7일 만에 완독하였다. 동 3월 22일부터 『論語』를 독서자료로 선정하여 4월 20일에 마치고, 동 4월 23일부터 2년 전에 읽었던 『中庸』을 다시 선정하였다. 7월 28일부터 『孟子』를 선정하여 읽기 시작하여 동 8월 19일에 완독하였으며, 8월 20일부터 『詩經』을 선정하여 11월 30일 100일 만에 끝마쳤다. 다시 7년(1425) 1월 5일부터 『春秋左傳』을 선정하여 12월 11일에 완독하고, 동 12월 12일 『周易』을 선정하여 세종 8년(1426) 7월 4일까지 읽다가 동 7월 18일에 세 번째 『大學衍義』를 선정하여 12월 3일까지 마치고 12월 4일부터 『通鑑綱目』으로 강독하였으며, 10년(1428) 7월 15일부터는 『史記』를 강독하였다. 12년 3월 27일부터는 『六典』을 강론하고, 12년(1430) 4월 21일부터는 『自治通鑑續編』을 강론하였으며, 12년 8월 23일부터는 경연에서 『律呂新書』를 강론하였다. 13년(1431) 1월 12일에는 『宋鑑』을, 13년 10월 29일에는 『六典』, 14년(1432) 1월 6일에는 다시 『宋鑑』을, 14년 2월 6일에는 『性理大全』, 15년 6월 21일에는 신찬 『六典』에 대해서 토론하였으며, 15년(1433) 8월 13일에는 『性理大全』을 강론하고, 경연관들에게 칠월시를 지어서 제출하도록 하였다. 16년(1434) 3월 6일에는 『宋朝名臣言行錄』의 강독을 시작하여 8월 19일까지 필독하고, 동년 8월 20일부터 10년 전인 세종 6년에 읽었던 『論語』를 선정하였다. 19년(1437) 7월 27일에는 『詩傳』의 庶見素衣篇을 읽고 토론

野史·小說·墓誌類 등 322종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春秋左氏傳』의 書法에 따라 완성하여 神宗이 『자치통감』이라 이름을 붙이고 自序를 지었다.

54) 世宗實錄, 卷2, 책2, p.282. 卽位年 11月 己未.

하였으며, 12월 28일까지 『詩經』 강론을 마쳤다. 20년(1438) 1월 12일부터는 『春秋』를, 21년(1439) 2월 7일에는 『通鑑』을 선정하여 경연관들과 토론을 하였지만 동년 윤2월 16일 이후부터는 경연자료에 대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세종이 경연에서 선정하여 토론자료로 이용된 책은 『大學衍義』, 『春秋』, 『通鑑綱目』, 『中庸』, 『尙書』, 『大學』, 『論語』, 『孟子』, 『詩經』, 『周易』, 『史記』, 『六典』, 『自治通鑑續編』, 『律呂新書』, 『宋鑑』, 『性理大全』, 『宋朝名臣言行錄』 등 17종이다.

<표 3>을 통해 세종이 즉위 초부터 21년 2월까지 읽었던 책의 순서를 보면, 大學衍義 → 詩經 → 大學衍義 → 春秋(호전) → 通鑑綱目 → 中庸 → 尙書 → 通鑑綱目 → 大學 → 論語 → 中庸 → 孟子 → 詩經 → 春秋(좌전) → 春秋(회공) → 春秋(좌전) → 春秋(호전) → 周易 → 大學衍義 → 通鑑綱目 → 史記 → 詩經 → 六典 → 自治通鑑續編 → 律呂新書 → 宋鑑 → 六典 → 宋鑑 → 性理大全 → 六典 → 性理大全 → 宋朝名臣言行錄 → 論語 → 詩經 → 春秋 → 通鑑綱目 순이다. 이 중 경연에서 두 번 이상 선정된 책은 『大學衍義』, 『春秋』, 『通鑑綱目』, 『中庸』, 『論語』, 『詩經』이었다. 이는 곧 세종이 재위 시에 가장 즐겨 읽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大學衍義』는 宋의 眞德秀가 43권으로 편집한 책으로 고려시대 尹澤이 공민왕에게 진강하면서 빛을 보게 되었으며,⁵⁵⁾ 공양왕 때 정몽주에게 『貞觀政要』를 강독케 하였으나 尹紹宗이 『大學衍義』를 추천하여 읽도록 하였다.⁵⁶⁾ 윤소종이 본 서를 추천한 이유는 二帝三王을 본받아 성군의 정치의 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도 가장 먼저 劉敬과 함께 사적으로 『大學衍義』를 읽었으나 경연에서는 읽지 않자 사간원이 경연에서 강독하도록 권유한 적이 있으며, 태종 때도 河崙이 이 책을 추천하기도 하였다. 그 후 경연에서 필수적으로 토론자료로 삼았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세종 즉위년 10월 12일 동지경연사 이지강이 『大學衍義』를 진강한 후 토론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

55) 高麗史, 卷106. 列傳 第19. 尹諧條.

56) 高麗史, 卷120. 列傳 第33. 尹紹宗條.

〈표 3〉 世宗의 讀書討論 日程 및 資料

時 期	資料(內容)	時 期	資料(內容)
即位 10月 7日	大學衍義	即位 11月 13日	近思錄
1年 1月 30日	詩經(빈풍)	1年 7月 9日	大學衍義
1年 7月 13日	春秋(호씨전)	2年 1月 1日	通鑑綱目
4年 1月 23日	中庸	4年 12月 25日	尙書
5年 9月 7日	通鑑綱目	6年 3月 14日	大學
6年 3月 22日	論語	6年 4月 23日	中庸
6年 7月 28日	孟子	6年 8月 19日	孟子
6年 8月 20日	詩經	6年 11月 4日	詩經(시월편)
6年 11月 30日	詩經	7年 1月 5日	春秋(좌전)
7年 1月 22日	春秋(회공)	7年 4月 29日	春秋(좌전)
7年 5月 17日	春秋(호전)	7年 12月 11日	春秋(호전)
7年 12月 12日	周易	8年 7月 18日	大學衍義
8年 12月 4日	通鑑綱目	9年 12月 13日	通鑑綱目
10年 7月 15日	史記	11年 10月 22日	詩經
12年 3月 27日	六典	12年 4月 21日	自治通鑑續篇
12年 8月 23日	律呂新書	13年 1月 12日	宋鑑
13年 10月 29日	六典	14年 1月 6日	宋鑑
14年 2月 6日	性理大全	15年 6月 21日	新撰六典
15年 8月 13日	性理大全	16年 3月 6日	宋朝名臣言行錄
16年 7月 8日	名臣言行錄	16年 8月 20日	論語
19年 7月 27日	詩經(庶見素衣篇)	19年 9月 8日	詩經(采蘋章)
19年 10月 18日	詩經(祇父之什)	19年 11월 12日	詩經(召旻)
19年 11월 19日	詩經 완독	20年 1月 12日	春秋(19年 11. 20 시작)
20年 3月 19日	春秋(좌전)	21年 2月 7日	通鑑

이지강: 임금의 학문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근본이 되오니, 마음을 바르게 한 후에야 백관이 바르게 되고, 백관이 올바르면 모든 백성이 바르게 됩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요지는 오로지 이 책에 있습니다.

세종: 그렇지만 경서를 글귀로만 풀이하는 것은 학문에 도움이 없다. 반드시 마음의 공부에 있어야만 이에 유익할 것이다.⁵⁷⁾

위 대화내용에서 대학연의를 읽어야만 하는 목적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은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과 학문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격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 시대 국왕이 되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책으로 여겼던 것이다.

세종이 즉위 초부터 21년 2월까지 경연에서 독서토론했던 회수는 총 1976회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표 4>에 나타나듯이 세종 2년(1420)에는 48회, 3년(1421)은 6회, 4년(1422)은 43회에 불과하고 5년(1423)부터 16년(1434)까지는 상당히 많은 회수를 보이고 있다. 세종 2년부터 4년까지 경연회수가 적은 것은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 원인은 세종 2년(1420) 모친 원경왕후, 세종 4년(1422) 부왕인 태종이 사망한 해이므로 독서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이 가장 독서를 활발히 한 해는 세종 5년에 206회로 나타났는데 세종의 나이 27세 되는 해로 거의 매일 경연관들과 토론했다는 근거이다. 이는 양친의 사망으로 3년 동안 부진했던 독서를 계획적으로 실시한데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후부터 꾸준히 경연에 참여하다가 16년 9월 22일 이후 일정기간동안 『자치통감훈의』를 修撰하는 일로 정지하면서부터⁵⁸⁾ 17년(1435; 39세)과 18년(1436; 40세)에는 경연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19년 53회, 20년 69회, 21년 26회 등으로 집권 17년 즉, 세종의 나이 39세 되는 해부터 거의 경연관들과 독서토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년(1440)부터 집권말기(32년; 1449.2)까지는 거의 기록이 없다.

<표 4> 世宗의 年度別 經筵 및 讀書討論回數⁵⁹⁾

집권 년도	즉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경연 회수	39	106	48	6	43	206	84	111	119	150	158	175	164	78	126	107	108	0	0	53	69	26	0

57) 世宗實錄, 卷1. 책2. p.273. 卽位年 10月 戊子.

58) 世宗實錄, 卷65. 책3. p.591. 16年 9月 丙申.

59) 世宗, 22년부터 31년까지 『朝鮮王朝實錄』에는 經筵에 관한 기록이 없음.

그 원인은 평소의 지병인 당뇨병이 계속되어 독서의 장애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 28년 6월 18일 李季甸의 貢法에 대한 상소를 토론하는 중 黃守身에게 하교한 “옛날에 내가 經筵에 나갈 때는 항상 집현전 관원에게 항상 내 心懷를 말하고, 또한 그들의 포부를 開陳하였는데, 근래에는 몸이 질병에 걸리어 오래 接見하지 못하였으니, 나의 심회를 자세히 알지 못할 것이다.”⁶⁰⁾ 라는 내용에서 정지 사유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세종은 지병으로 인해 점차 독서에 관심이 멀어졌으며, 그 결과 경연의 참여회수도 감소되자 경연관의 수 까지 조정을 보게되었다. 초기 경연관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세종 17년(1435) 7월에는 32명으로 22명은 경연을 담당하고 10명은 서연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18년(1436) 6월 2일에는 집현전 관원 32명이 많다하여 20명으로 축소되어 10명씩 경연과 서연을 나누어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이듬해인 19년(1437) 7월 27일 이후부터 9월 3일까지 집현전 관원이 다른 곳으로 배치되어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독서토론이 정지되기도 하였다. 당시 세종은 네 사람만 되어도 두 사람씩 교대해서 경연에 나갈 수 있다고 하여⁶¹⁾ 9월 7일부터 경연에 다시 나아가 독서를 시작한 일이 있지만, 이는 세종의 집권말기에 경연이 형식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입증해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세종은 20, 30대에 많은 독서를 하였지만 40대 이후부터는 독서가 점차적으로 부진했음을 알 수 있다.

5. 結 言

이상은 조선시대 태조, 세종연간 경연에서 실시된 왕들의 독서토론에 대해서 접근하여 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고려시대에 실시된 경연제도를 재정비하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꿈을 실현하려는 뜻을 두었지만 자신은 독서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60) 世宗實錄, 卷112. 책4. p.679. 28年 6月 甲寅.

61) 世宗實錄, 卷78. 책4. p.103. 19年 9月 庚寅.

건국 1년(1392) 11월에 유경과 함께 『大學衍義』를 읽었으나 공식적인 경연이 아니었으며, 태조 7년 10월부터 경연에서 읽었던 자료들은 재위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인 방과에게 동년 9월에 왕위를 물려준 후 상왕으로 있으면서 10월부터 5번의 경연을 연 것이 그의 독서토론 기록이다. 그가 상왕으로 있으면서 5회의 경연에서 읽었던 책은 『貞觀政要』 『大學』 『論語』 3종이나 이 것도 정종이 즉위한 후이기 때문에 정종이 읽었던 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태조는 창업주로서 조선시대에 왕의 교육제도이자 문신들과의 독서토론 격인 경연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여 성리학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본다.

2) 정종은 집권기간이 2년 2개월이라 그의 독서량은 헤아릴 수 없지만 경연에서의 독서토론 회수는 총 31회 정도이며, 읽고 토론했던 책은 『論語』, 『通鑑』, 『大學衍義』가 전부이다. 그는 독서 보다는 격구를 좋아하여 밖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많았다.

3) 태종은 집권 후 6년까지는 경연에 약간의 관심을 보였지만 7년부터 집권 말기까지 경연에서 한번도 독서토론을 하지 않았다. 태종의 경연회수는 집권기간이 17년 10개월 정도 되지만 기록상으로 보면 15회 정도에 불과하다. 그가 경연에서 가장 친근했던 사람은 金科였으며, 金科와 읽었던 책도 『大學衍義』, 『尙書』, 『十八史略』, 『中庸』 4종뿐이다. 태종이 독서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정종과 마찬가지로 격구나 사냥 등이 독서저해요인이 되었다.

4) 세종의 독서토론 회수는 즉위년부터 21년 2월까지 총 1976회 이상으로 집계되었다. 세종 2년(1420)에는 48회, 3년(1421)은 6회, 4년(1422)은 43회에 불과하고 5년(1423)부터 16년(1434)까지는 상당히 많은 회수를 보이고 있다. 세종 2년부터 4년까지 경연회수가 적은 것은 거의 독서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 원인은 세종 2년(1420) 모친 원경왕후, 세종 4년(1422) 부왕인 태종이 사망한 해이므로 독서할 겨를이 없었다. 세종이 가장 독서를 활발히 한 해는 세종 5년에 206회로 나타났는데 세종의 나이 27세 되는 해로 거의 매일 경연관들과 토론했다는 근거이다. 이는 양친의 사망으로 3년 동안 부진했던 독서를 계획적으로 실시한데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후부터 꾸준히 경연에 참여하다가 16년 9월 22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자치통감훈의』를 修撰하는 일로 정지하면서부터 17년(1435; 39세)과 18년(1436; 40세)에는 경연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19년 53회, 20년 69회, 21년 26회 등으로 집권 17년 즉, 세종의 나이 39세 되는 해부터 거의 경연관들과 독서토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년(1440)부터 집권말기(32년; 1449.2)까지도 거의 기록이 없다. 그가 집권기간에 읽었던 책은 『大學衍義』, 『春秋』, 『通鑑綱目』, 『中庸』, 『尙書』, 『大學』, 『論語』, 『孟子』, 『詩經』, 『周易』, 『史記』, 『六典』, 『自治通鑑續編』, 『律呂新書』, 『宋鑑』, 『性理大全』, 『宋朝名臣言行錄』 등으로 선왕들에 비해 독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집권기간이 31년 6개월로 보면 독서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경연을 통한 독서토론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후대의 제왕교육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성리학의 발전에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參考文獻>

<고전자료>

- 『三國史記』 影印本(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3).
- 『高麗史』 影印本(서울, 한국학문헌연구소, 1983).
- 『高麗史節要』 影印本(서울, 한국학문헌연구소, 1983).
- 『朝鮮王朝實錄』 影印本(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6).
- 班固, 『漢書』 影印本(서울, 文友社, 1973).
- 『舊唐書』 影印本(서울, 경인문화사, 1977).
- 『二十五史』 影印本(서울, 예문인서관, 1999).
- 徐居正, 『筆苑雜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1487).

<논문>

- 金重權, 「高麗時代 睿宗의 讀書討論考察」, 『書誌學研究』 第25輯(2003. 6). p.209.
- 정두희, 「집현전학사연구」, 『전북사학』 4집(1980. 2) p.130.

李相玉, 「經筵에 나타난 經學과 帝王」, 『右石 文理大·法經大論文集』 第4輯(1970).
姜泰訓, 「經筵의 教育學的 接近」, 『教育研究』 卷10, 11호(圓光大學校 教育問題研究所, 1992).

K C I